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인군들인 리만경동지, 홍승무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공화국창건 69돐을 맞으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9월의 하늘가로 매아리쳐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선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우리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핵보급을 마련해 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와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렬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시며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편단심 당을 따라 혁명력강화의 길을 끝없이 걸으며 초강대국발명을 가진 주체식 열핵무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자주

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철퇴를 안기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웅적인민의 강요한 기상을 만방에 떨친 우리 당의 미더운 혁명투쟁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전사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열렬한 애국심, 고귀한 뜻을 다 바치며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올려세우기 위해 헌신해온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전력

적혁무력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심장길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권위와 공화국의 존엄이 실린 주체란의 즐거운 최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함으로써 위대한 대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국가를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 불타는 걸음을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었다.

618건설돌격대원들이 화력건설현장기업소 로동자 김성진, 청진자동화기공장 로동자 김항숙은 고산방울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무용도원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불꽃을 진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있으며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돌격대에 단련하여 젊음의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보진성 제2예방원, 남산병원간호원들이 땀은경, 김성향은 맑은 일출을 성실하게 하면서 지원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주체혁명의 억센 뿌리가 내린 삼지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대요전박물관으로, 사회주의막으로 꾸며가는 불격대원들을 볼 때는것을 마땅한 기분으로 여기고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인민보안관 후원은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청진구역공업품종합상점 로동자 심영희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액의 정을 기울였다.

덕원철계가정용품공장 직업인장 최철민은 조국의 무장병영을 위한 무장에 헌신할 일념만이 물심방면의 지원으로 청춘파견

실에 이바지하였다.

선군시대공로자로 내세워온 당의 믿음과 심장길이 간직하고 청진구역대홍관리부 무장 리태환도 많은 혁명파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여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자력자강의 만리마대진군에서 김정은대국주의를 더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적극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언덕으로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이 땅에 군로하는 인민이 주인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었으며 대양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만노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은 군중들의 꽃길이 끝없이 굽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급급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세민족민주진선 평양지구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의 강국건설 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철세위인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 등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에도 다함없는 총성의 대하가 출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대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현재만대에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과 중국향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 일본의 단체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8일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알렉세이 바르부호프 로직아인방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8일 중국향일혁명렬사 장물화동지의 가족

과 일본 <도쿄-평양무지개다리>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불패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체시에서 1948년 9월 9일 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에게

어서 매우 중대한 역사적사건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가지게 되었다.

김일성주체에 의하여 조선에 건설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빛나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해나가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의 선군명도아래 조선의 사회주의는 승미적으로 진전되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명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는 조선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존엄명치고있다.

세계와 그 추종세력들은 일심단결되고 막강한 군력을 가

진 조선을 감히 건드려지 못하 고있다.

조선은 김정은원수에 의하여 반드시 통일될것이다.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 조선은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칠것이다.

[조선중앙통신]